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二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逵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 社說 海峽條約改訂會議

一

土耳其政府의 要請에 基한 海峽制度에 關한 로잔느條約改訂會議는 去二十二日부터 瑞西레만湖畔 몬트로市에서 土、英、佛、伊、日、希、羅、유고슬라비아의 關係八個國代表出席下에 開會되엇다。獨逸의 再軍備斷行 墺匈兩國의 平和條約破棄宣言에 刺戟되어 土耳其도 로잔느條約을 破棄하고 다다넬스海峽의 再武裝을 斷行한다는 消息은 昨春 獨逸의 一方的宣言以來 屢屢傳하엿고 事實上 今春에 土耳其는 다다넬스海峽의 再武裝을 斷行하엿다。그러나 土耳其는 一方으로는 再武裝을 斷行하면서 關係各國에 同條約改訂을 要請하야 이合理化에 努力하는同時에 다다넬스及 보스포러스海峽의 外國艦船通過에 關한 制限과 航空機上空通過禁止의 約束을 엇고저 關係各國과 折衝한結果 今回의 몬트로會議를 開催하게되것이다。

二

로잔느條約은 獨逸에對한 베르사이유條約、墺匈兩國에對한 산제르만、트리아논條約과 마찬가지로 大戰後 聯合國이 土耳其를相對로 締結한 平和條約이다。同條約은(一)다다넬스海峽、마르마라海諸島及 보스포러스海峽에 非武裝地帶를 設定함에 依하야 地中海로부터 黑海에의 航行自由를 保障하고 (二)土耳其、勃牙利亞、希臘三國間의 國境線、所謂 드레스國境線에 非武裝地帶를 設置하야 歐洲에對한 土耳其의 領土를 分限한것이다。그中 前者 即 歐羅巴土耳其와 近東土耳其를 隔하고 地中海와 黑海를 連絡하는 다、보兩海峽의 軍事上價値는 重大한바이니 地中海에서 黑海로 通하는 重大關門의 武裝에依한 戰時封鎖에 想到할때에 그重要性은 明白하다。獨墺와함께 大戰에 聯合國을 相對로 싸운 土耳其가 그罪科(?)로 聯合國側의 强制를 免하지못하야 드디어 非武裝地帶設定에 應하지안흘수 업섯든것이다。

三

그러나 이것이 土耳其에 對하야 屈辱條約인以上 이羈絆을 벗어나거를 願하엿슬것은 勿論이다。大戰以後 實力養成에 專念한케말파샤治下의 土耳其는 近東唯一의 實力國家가 되엇슬뿐아니라、獨墺匈等諸國이 이미 平和條約을 廢棄한以上 土耳其만이 屈辱條約에 滿足할수는 업다。이에 土耳其는 다다넬스海峽의 武裝을 斷行하는 同時에 關係各國에 로잔느條約改訂을 要求한것이다。今回의 會議에서 土耳其는 各國商船의 다海峽自由航行을 保障하는同時에 航空機의 同海峽通過禁止와 黑海에面한 海岸線을가지지아니한 諸國軍艦의 平時의 入港制限、戰時의 通過禁止를 要求하고 이것을 提案하엿다。

四

土耳其의 要求와 提案에 關하야 關係各國은 그合法的措置를 稱揚하는同時에 原則的으로 土耳其案을 承認하는 態度를 取하야 會議第一日에는 卽時 新條約起草委員會를 任命하야 條約改訂에 着手하엿다。그러나 이에는 各國의 利害關係가 錯綜한것만큼 意見一致는 容易치 안흘것이고 特히 土耳其의 提案中 黑海에面한 海岸線有無로써 軍艦通過制限規定을 달리한다는것은 곳 蘇聯艦隊의 自由航行을 許하는것을 意味하는것만큼 各國의 이에對한 反對는 猛烈하다。蘇聯도 土耳其의 要求에 反하지안코 스스로 其他 要求條件을 提出하엿다。이에 몬트로會議는 土耳其問題를 떠나서 蘇聯海軍無制限航行問題에 集中되는듯한 感이 不無하야 問題는 俄然 重大化하게 되엿다。蘇土兩國은 地理的으로 接近하여잇슬뿐만 아니라 外交的으로도 特殊關係에 잇는니만치 互相支持하려니와、土耳其에 同情的態度를 보이던 諸國도 이問題는 强硬히 反對한다。即 伊太利는 不參加를 言明하니만치 問題되지 안커니와 가장 同情的立場을 가지던 英國이 蘇聯과 他國과의 差別을 理由로 猛烈히 反對하고、日本이 또한 步調를 가치하야 軍艦航行에 對한 制限撤廢를 條件으로 土國要求를 支持한다고 言明하야 注目을 끌게되엇다。발칸諸國은 土耳其와 相互援助의 義務가 발칸條約에 依하야 賦課되엇스나 土耳其를 支持할것이오 佛國은 또한蘇聯과 相互援助의 關係에 잇는니만치 蘇聯의要求를 支持할것이다。이리하야 反對와 贊成의 兩陣營으로 分化되는 傾向이 濃厚한 同會議는 對蘇問題를 中心으로 意見이 對立되어 一大論戰이 展開될 形勢이므로 前途는 相當한 波瀾이 豫想된다。

## 蘇傳統的政策으로 黑海艦隊 自由通過要求
### 英國도均等要求主張하야蘇聯과意見對立
### 몬트로會議難關逢着

【몬트로二十四日發同盟】몬트로會議는 開會以來 겨우三日박게 지나지못하엿스나 英蘇兩國間代表의 主張이 完全對立되여 會議는 벌서부터 重大難關에 逢着하게되엿다 蘇聯代表는 帝政露西亞以來의 傳統的政策에 基하야 黑海艦隊의 海峽自由航行을 要求하나 英國代表는 最近에잇서 親善關係에 基하야 均等原則을 主張하야 蘇聯만이 海峽의自由航行의 特權을 享有하는데 絶對反對를 表明하고잇다 英國代表는 最後的方針의 表明을 留保하고 伊太利代表의 到着을 期待하야 共同戰線을베풀意向이라고 解釋되는데 伊太利代表는 海峽再武裝에는 難色을表示함으로 同代表가 會議에 參加하드라도 會議의 好轉은 豫想할수업다고한다

## 駐佛大使館에서 英佛首腦會談

【巴里二十四日發同盟】英國外相이든氏는 聯盟理事會와 總會에 出席次 쥬네브에赴하는途中二十四日 午後 六時巴里에 到着豫定인데 巴里駐箚英國大使클락氏는 二十五日夜大使館邸에 불룸首相델보外相을 晩餐會에 招待하고 首相外相을 紹介한後 四氏가 膝를 交하야 理事會와 總會對策其他 歐洲의 政局問題에關하야 意見을 交換할터이다 그리고 英佛兩外相은 同夜十一時 二十分發列車로함께 쥬네브에 赴하게되엇스므로 會談은 出發直前의 數時間에 亘할터인바 英國外相과佛國新內閣首腦部와는 最初의 會見인것만큼 各方面에서 注目하고잇다

## 廣西軍先頭部隊 衡州城攻擊說
### 不意襲擊으로中央軍損害甚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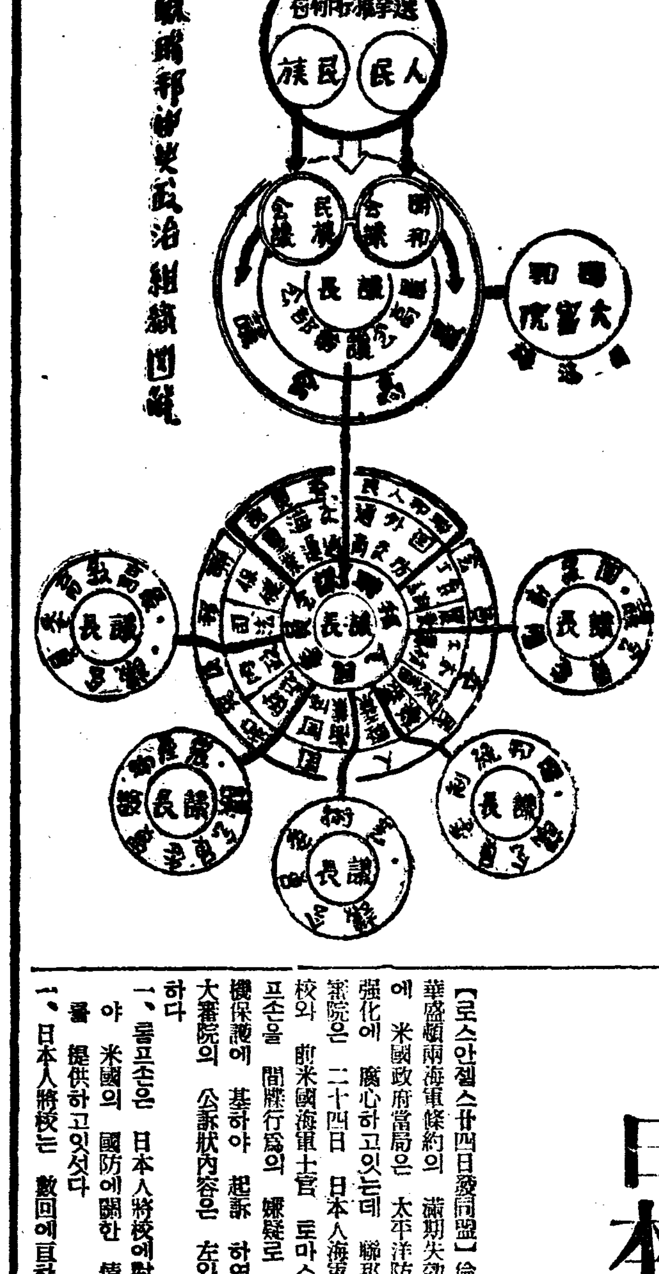
【上海二十五日發同盟】中國側에 達한情報에依하면 北進中인 廣西軍先頭部隊는 二十四日午後粵漢線衡州城外에 迫하야 城內에 駐屯하는 中央軍에對하야 攻擊를 加하엿다 中央軍은 俄然 直時에 應戰하야 砲火를交하엿는데 不意의襲擊을바든 中央軍은 多大한 損害를 蒙한樣條이다

## 蘇聯新憲法檢討
## 司法權을獨立코 人民權利를尊重
### ③ 咸尙勳

◇ 第四章은 聯邦各共和國權力의 最高機關을 規定한것인데 各共和國 例컨대 露西亞、白露西亞、우크라이나等의 權力最高機關은 蘇聯邦에 잇서서 最高機關이 聯邦最高會議이듯이 聯邦各共和國最高會議다。그리고 이 最高會議가 共和國人民委員會議를 任命하고 最高會議幹部會를 選任하는것은 聯邦에 잇서서 聯邦最高會議의 地位와 마찬가지다。第五章은 聯邦의 行政機關을 規定한것인데 人民委員會議가 最高行政執行機關임과 그 構成人員이 人民委員會議長、副議長、數三特殊委員會議長과十六人民委員으로 되것과 人民委員部中 國防、外交、通商、交通、海運、重工業의 人民委員部는 第一類人民委員部라하야 全聯邦의 人民委員部요、食料工業、輕工業、木材工業、財政、內務、司法等의人民委員部는 第二類人民委員部라하야『聯邦及 各共和國』의 委員部로 되것은 前者의 憲法과 마찬가지다。다못聯邦人民委員會議에 藝術委員會議長、高等敎育委員會議長이 더加入되것과『聯邦及各共和國』人民委員部에 木材工業 穀類家畜等 人民委員이 늘엇다는것이 改正되것이다。

◇ 第六章 國家行政機關은 聯邦共和國의 最高行政執行機關인 共和國人民委員會議의 構成 權限等을 規定하얏스며 第七章은自治共和國의 最高機關인 自治國最高會議의 構成 權限을 規定하얏스며 第八章은 自治州 自治區及 都市村落의 國家權力機關인 勤勞階級代表者會議 即쏘베트의 構成 性質 權限을 規定한것인데 前者의 舊憲法과 다른 點이 업다。

◇ 第九章 裁判所、檢事局에 關한 規定이 相當히 改正되엇는데 이곳에서 注目되는것은 司法에 잇서서도 民主化를 努力한것이다。即 國家保安法(게・페・우)의 廢止에 伴하야 司法權이 獨立되것은 當然한 歸趨이니 第百十二條에 裁判官은 法律에 準據하는 外에 全혀 獨立한 地位를 保有함 이라고 한것이나 第百十三條에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檢事는 各人民委員과 委員所管各機關의 官公吏及 一般市民이 法律을 正確히 遵守하는지 그與否를 監督할 最高의權利를 가짐 이라한것이든지 第百三條에 一切의 裁判所의 事件審理에 當해서는 人民代表를 立會케 함 이라 한것이든지 모다 這間의 消息을 알수잇다。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興味를 끄는것은 第百十條에 公判에서는 聯邦、或은 自治共和國 又는 自治州의 國語를 使用함。訴訟關係者가 此等 國語를 理解치 못할境遇에는 通譯을 使用하야 充分히 事件의 內容을 知悉할權利를 享有함。이라 한것이니 이 蘇聯에 民族이 多數 雜居하는것과 通譯生을 두지안코 通譯을 被告의 (或은原告)의 自意로 擇하라하리만큼 民意를 尊重한것을 알수잇다。(繼續)



蘇聯邦新政治組織圖解

## 『마르세이유』港內의 交通完全히杜絶
### 淀泊汽船六十八隻의四千乘組員罷業參加
## 暴力으로船舶을占領

【마르세이유卅四日發同盟】마르세이유港水上勞働者의罷業은 益益猖獗하야 港內의交通은 全然 杜絶되게되엿다 入港中인汽船六十八隻의乘組員四千名은 모다罷業에參加하야 脅迫又는暴力으로 船長及 高級船員을 追出하고 船舶을彼等의손으로 占領하고 檣頭에는 赤旗를 揭하엿다

## 海員罷業解決? 海事省次官言明

【巴里二十四日發同盟】海事省次官탓소氏는 二十四日 午後마르세이유港의 海員罷業에 對하야 左와如히發表하엿다 마르세이유港에 이러난 罷業은 二十四日에 至하야 船主와海員과의間에 協定이 成立된 結果 事實上解決되엿다 海員團은 二十五日午前부터 全部復業할 豫定이다

## 佛海軍機空中衝突

【巴里二十四日發同盟】二十四日 午後셀부르軍港上空에서 練習中이든 佛國海軍의 水上四機는同時에 降下着陸하려할時 其中二機가衝突되여 一機는 現場에서 墜落大破되며 搭乘者二名은 即死하엿고 他의一機는 大破損를 蒙한채로 數百碼바람에불려 이것도 亦是墜落하야 搭乘者三名中 二名은機에서떠러젓고 一名은機下에 깔려慘死를 遂하엿다 過去數個月셀부르軍港에서 飛行機衝突事件이頻發하야 今回는實로 第七回인바 當局은 委員會를設하야 原因調査를命하엿다

## 伊航空使節伯林到着

【伯林廿四日發同盟】航空次官바르레將軍을 團將으로한 伊太利航空使節은 飛行機로 二十四日 伯林郊外飛行場에 到着하야 獨逸政府軍部要路者 駐獨伊太利大使等多數의 出迎을 바덧다

## 軍을對象안하고 特高警察網擴充
### 戒嚴令解除後의治安確保策
### 內務省萬全策을講究

【東京電話同盟】二、二六事件의 不祥事件은 治安警察의 確保를期하는데 特히 今後의 警察行政執行上 重大轉機를 招來하야此種事件에 直面할 境遇에잇서軍과 警察과의 關係와 治安確保에對하여는 特別議會에서 相當히 猛烈한 質問을 行하고 事件의 善後處置와 關聯하야 內務省에서는

一、警察行政의 執行은 大義名分에 則하야 其精神은 此種事件에依하야 何等動搖치안코 또警察은 軍을 對象으로하지 안는다

는結論에 達하엿다 그리하야 마치니軍事大化하는 治安確保에備키爲하야 特高警察網의 擴充을期하는同時에 不穩文書等 臨時取締法을 活用하야 怪文書의撲滅을圖하는一方 外諜防衛의積極的對策을 講究하는等 內務省은 戒嚴令 解除後에잇서서 全國治安의確保에 萬全의努力을 傾注하고잇다 潮內相이 二十五日 警察部長會議 第一日에잇서 非常時事變에處할 警察行政의 執行에對하야 具體的으로 指示하고 特히 責任感을 痛感하고 敢然히 國家에殉하고 精神的緊張을하는同時에非常警備의 强化를 期하기를 强調한것은 注目되여잇다

## 朝鮮軍司令部서 蘇聯에嚴重抗議
### 飛機의越境에對하야

朝鮮軍司令部發表—六月二十四日 午後一時 蘇聯邦軍用飛行機複葉第九七二號機가 高度六百米로 低空飛行을 繼續하며 지구로와아山 上空으로부터 越境하야 蘇滿國境及 琿春附近을 視察하고 東硏寨附近으로부터 琿春東端까지 일으럿다가 다시回首하야 一時十五分 長嶺子方面으로부터 機影을감추엇다 如斯히 低空飛行으로 越境한 일은 前例가 업는일로 朝鮮軍司令部에서는 每日的行爲라하야 關係當局을 通하야蘇聯當局에 嚴重抗議하리라고한다

## 朝滿上空에서偵察 蘇聯二機越境

二十四日午後二時二十分頃 灰色으로칠한 蘇聯軍用機인듯한 怪飛行機二機가 滿蘇國境長嶺子上空을 約七百米의 高度를 保持하면서 越境飛來하야 琿春을걸回하고 咸興北道訓戎對岸을 偵察한後 何處로 자최를감추엇다

時事漫畫 日『네가 그런맥장이라면 어때 우리되는대로 한번 해보자』

## 有給休暇制
### 國際勞働會議서採擇

【쥬네브二十四日發同盟】國際勞働會議는 二十四日午後本會議에 잇서 一年六日有給休暇制案을審議表決에 附한 結果 九十四票對十五票의 壓倒的多數로 同案을 最終的으로 採擇하엿다 右表決終了後 各國代表는 交交히 이러나 國際勞働局長바트러博士의 斡旋에 謝意를表한다음 白耳義勞働代表멜란氏는 四十時間週制의 否決에 不滿을表하야政府事業以外 四十時間勞働週制는 全部否決되엿스나 이에對하야 全白耳義勞働者를 代表하야 遺憾의意를 表하다 述하엿다 다음에 局長바트러博士는 閉會인사를 述하야 曰 有給休暇制가 今回의 會議에서 採擇된것은 御同慶하야 마지안흘수업다 四十時間週制가 確立되지안흔것은 遺憾이나 急激한 變化를 招來함은 자못 無理일것이다 四十時間週制를 論할時 余는四十八時間制를 採擇한經過를 想起하지안흘수업다 四十八時間制가 問題된것은一八四八年으로 爾來七十年後一九一九年에이르러 겨우實現되엿다 그러데 四十時間週制가 最初에上程되기는 一九三一年으로 爾來五年間 六個國政府가 右制度의全的乃至 部分的으로 實施하고잇다 이것은 實로 劃期的社會立法이안인가 余는 國際勞働局의 前途에依然希望을 가지는바이다 이것으로 國際勞働會議는 開會以來 前後二十日間 會議를終了하고 終了를告하엿다

## 二十六日公布 滿洲國滿鮮拓殖法

【新京二十五日發同盟】滿洲國政府는 最近 朝鮮人의 入滿移住增加에 鑑하야 朝鮮人의

一、入滿定住
一、農耕地의取得
一、農耕方法

等에 對하야 斡旋指導케 爲하야 滿洲國 滿鮮拓殖會社를 設立키로 決定하고 二十六日 同會社法을 公布하고 朝鮮人移住民의 統制指導를 하기로되엿다

## 夕刊後市況 廿五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九八○ (二○高)
鐘新 一五五七○ (四○高)
日産 六九六○ (二○低)
東新 一二九七○ (七○高)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八五○○ 先限 七二七○○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八○ 先限 五七八○

## 間諜의嫌疑로써 日本人將校起訴
### 米國聯邦大審院에서

【로스안젤스卅四日發同盟】倫敦華盛頓兩海軍條約의 滿期失効前에 米國政府當局은 太平洋防備强化에 腐心하고잇는데 聯邦大審院은 二十四日 日本人海軍將校와 前米國海軍士官 토마스롬프손을 間諜行爲의 嫌疑로 軍機保護에 基하야 起訴 하엿다 大審院의 公訴狀內容은 左와如하다

一、롬프손은 日本人將校에對하야 米國의 國防에關한 情報를 提供하고잇섯다
一、日本人將校는 數回에亘하야 롬프손에게 金錢을 供與하고 롬프손은 米國海軍砲術學校、敎範及 米國海軍의 勤務日程書를 日本人 將校에게 供與하엿다
一、日本人將校는 一九三四年十一月스탄포드大學으로부터 롬프손에게 書面을보내여 定額의 月給을與하는代身 米國艦隊의 演習日程을 送附하기를 要求하엿다

롬프손은 一九三五年三月 軍艦 펜실바니아、코로라드兩艦을 訪問한後 로산젤스에서日本人將校와 會見하고 右演習日程書를 手交하엿다 右日本人將校는 現在 東京에잇고 롬프손은 海軍正服 不法着用嫌疑로 目下 拘引中이다

## 米海軍當局談

【華盛頓二十四日發同盟】米國海軍省當局은 日本人將校及 前米國海軍士官의 間諜事件에 對하야 二十四日夜 左와如히 聲明하엿다 事件은 로스안젤스裁判所에서 局地的으로 解決되리라고 解釋된다

모든病弱體質은 이러케更新

微熱不快感寢汗은除去、胃腸障害는回復、血色良好 食慾增進、體重은漸次增加한다

멧十圓에도그效力을 밋지못할品이잇고、一個月分一圓五十錢에도實効正確한藥도 잇다

조흔品은高價하고、粗雜할수록 싸다—고하는것은가장平凡한通例이다、그러치마는藥品에 限하여는、그러한通例가 一律的으로肯定되지는못한다。

下劑

緩下劑、峻下劑라하는것이잇다。緩下劑의 別이잇는바、峻下劑의 作用이너머 激甚하고 緩下劑는 너머緩和하야効果가弱하고 理想的下劑라함만한것은적다。

『ゲンノシヤウコ』(쥐손이풀)이라하는 草藥이잇다 이것을다려마시면下痢가防止되고 頑固한便秘症에는 適當한緩下가된다。確實히『現の證據』이다。勞働에까지말고 山野에서採集하여두면『ゲンノシヤウコ』는멧貫이라도 無代로 어들수잇스며 漢藥房에서 乾燥한것을買入하더라도 멧分안된다。더욱히高價한下劑에 그効가떠러지지안는다

價格

이高價가 有効品—이런 觀念은 一掃하고 藥을 選擇할때에는 생각지안어서는안된다。價格에相應한特効藥도업는것은 아니겟지만、그러나 貴重藥으로생각하고사온것이、實은包裝代、意匠容器等代價를 支拂하는것이決코적은일은아니다。

ネオ

ネオギー란藥物은 包裝이나 體裁는 質素하며、創製者는、容器나外觀으로 파는性質의것은아니다。무엇보다 效果만을 尊重하고잇다。

그리고一個月量 一圓五十錢의 定價는 實効에 比較하야 가장 廉價한것이다 本硏究所는社會的奉仕의意味로、멧十圓하는 所謂高貴藥이라하는以上의確信과實効를가지고잇다。

容器나外觀은質素다하더라도瓶만은、防濕裝置를다하엿다。服用者를爲하야、어떠케하든지 藥効가 減損아니될것을 考慮하고잇다。

植物

호르몬이란新發見物이네오네오기ー의主効分이며、植物호르몬의藥理는 制限되紙面에서 說破할수업다、또한 藥을求하는분은 百가지理論보다 한實効가第一이다、잔소리가튼說明的理論은避하기로한다。

植物호르몬의 가장注目되는點을말하면、于先人體의 호르몬을 充實식혀 그活動을 擴充식히는 作用이다。

처음

에는『ゲンノシヤウコ』에 對한것을 써섯지만、今日의藥學者가 어떠種類의藥草中에는、創造的新藥類等、到底히 미칠수업는効能을 나타내는것이다。

ネオネオギー의主効分인植物호르몬도、그原草는드물게보는精力强靭의特殊植物이며 本硏究所에서는、一定한時期에非常한困難을바드면서採集하는것이다

服用

後第一 確實히알게되는것은 胃腸의 炎症弛緩의回復, 特히腸絨毛의吸收力增大에依한, 全身의榮養이 充實하기때문에, 血色의良化, 體重의增加等이며, 이藥物을 服飮하면, 特히注意할것은 便通이다。榮養의吸收가 完全하게됨으로써, 排便은食物의殘滓뿐으로서만되며, 가장少量의不用物만이 排泄되기때문에, 便通은퍽으나減少된다。

全身의榮養充實內分泌作用의擴充으로, 肺患肋膜精力減退, 胃腸病이나虛弱體質도, 몰나볼만큼回復되며元氣가넘친다。只今까지의諸種藥物과榮養品도조치만, 體質이속心으로부터 强壯케하려면 ネオネオギー를 服用하라。

購買에對하야

ネオネオギー의價格은二百六十個入約一月量瓶金一圓五十錢、德用瓶金三圓、九圓의二種、全國藥店에잇다。

近日에類似同名品이 이슴으로購入時에注意하라

直接藥書一枚를創製元인 東京市小石川區關口町大洗館百○大番地日本植生物硏究所에보내면、嚴重密封、送料當所負擔으로送附함。海外、植民地에限하야振替東京五六八一二番에拂入할事

(NN3D——150)

‖植物ホルモン活用‖
ネオネオギー

# 哈市近郊三百紅軍 同胞農場大擧襲擊

## 四名을殺害하고放火逃走

### 農民百餘名은道裡로避難

【哈爾濱支局電話】지난이십삼일 오전여덟시에 당지재류동포 김모씨(金某氏)의경영하는 농장에 홍군(紅軍)삼백명가량이엄습해와 서농민네명을죽이다음농장을태워바리고도망을햇다 이소동과함께 남어지 농민 일백 수무명은 도리(道裡)로 피난햇는데 이급보를 바든 일마구둔에서는 목하추격토벌중이다

# 楚山對岸太陽岔에 混合土兵團襲來

## 民家에放火金品掠奪

### 急報듯고楚山部隊應援出動

【新義州】朝鮮軍司令部發表=이십사일오전아홉시 평북 초산(楚山)대안 즙안현 태양초(輯安縣太陽岔)에 조선인과 만주인과의 합동토병 약이백명이 나타나서 민가에불을 질르고 략탈을함으로 그곳 외초구(外岔溝)주둔 수비대○○대는 토병들과 대전중이라는급보를 바든 초산○○대장은 부하○○명을 다리고 오전열한시에 외초구수비대를 응원할차로 원경하엿든바 이미 외초구○○대가 토병을처서 물리친후이라 그대로곳도라왓다

# 當局의彈壓緩和를 普天教幹部歎願

## 全北警察部에陳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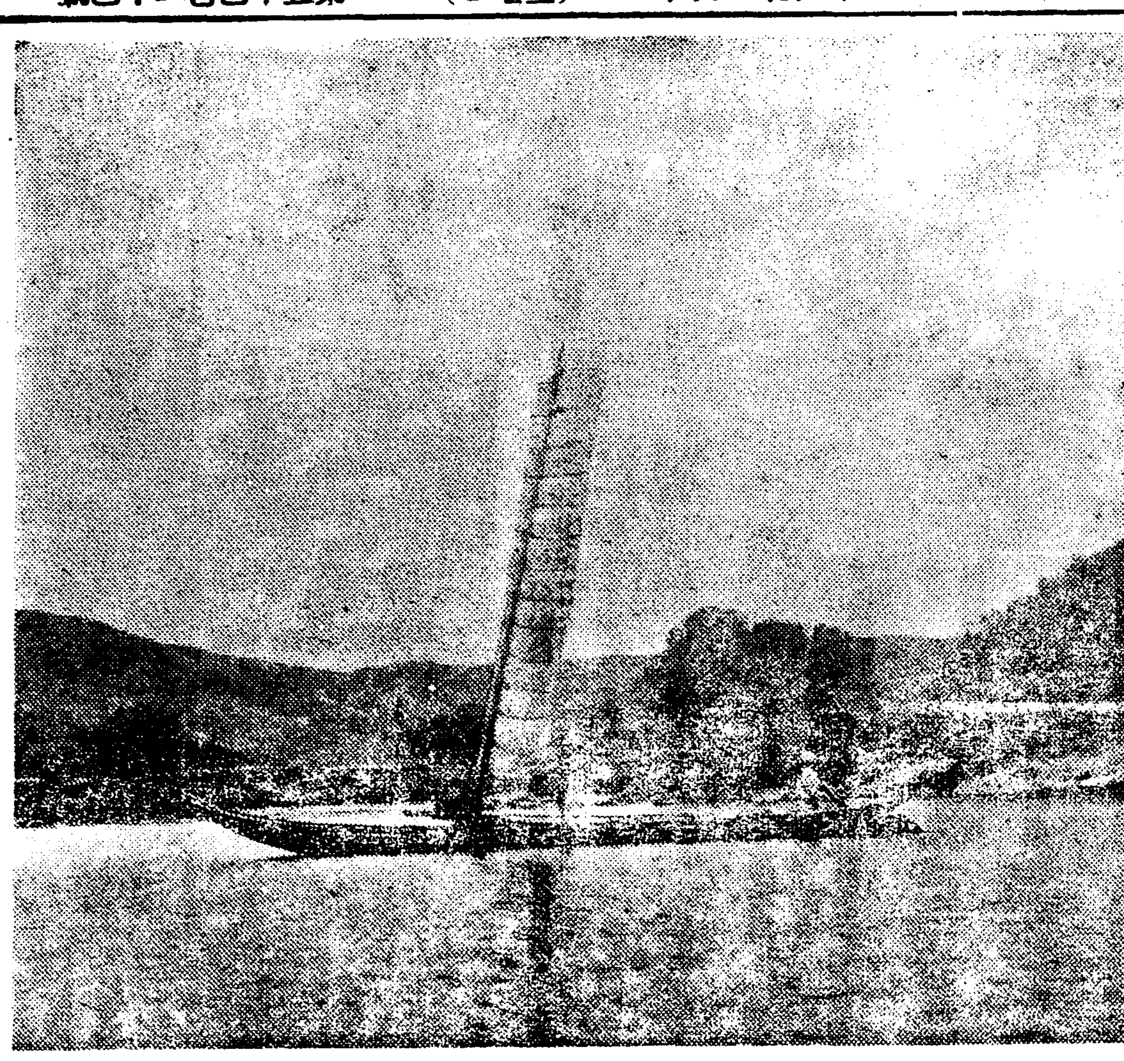
【全州】세교 보천교를 지난십일새벽에 전북도경찰부에서 일제 가택을수색하고 그후계속하야 엄밀한내사를 거듭하고잇든바 보천교간부측에서는 의외에 당국의 탄압에는 그대로잇슬수업다하야 장문의 애원서를만드러 장차조선총독에게 진정을하는일면 지난이십삼일에는 동교간부중 원약재(袁若齋)(四三)김홍규(金洪圭)(六九)리병철(李炳喆)(五一)등 세사람이 오정아홉시반부터 전북경찰부를 차저와 포교의허가를 용서하여 달라는뜻을 진정하고 물러갓다고한다 그런데 이는 간부와 교도들의 중대한 생활문제이라한다

# 利川教約所는 閉鎖키로決定

【利川】무지를리회로 일반농매한민중을 괴만하야 별별수단이 가튼 흥계로 혹세무민을 일삼어 사회의 저주와 증오에 적이되여잇든 보천교는 사법의손이한번동족이매 한때의성운도옛꿈속에술어지고 청천벽력에 본거룡일흔 지방교도들은 추잇낙엽의비애속에서 가을바람에 날리는렵과도가티 귀의처를모르고잇든이때에 지난십구일 리천경찰서경무주임은 사오인의정사복경관을 인솔하고 리천보천교의총무영인 마장면리치리(麻長面梨峙里)에잇는 교약소를 습격하야 주문괴타서류로부터 비품등오십여점을 압수하야 오는동시에 약장김긔영(約長金基榮)좌약장곽영수(左約長郭永秀)우약장안재호(右約長安在鎬)등을호출하고 교약소페쇠를 종용하는일방 일후부터 집회치안케다는청서를밧고 돌려보냇다하며 지금관내에 산재하야잇는 교도들을 속속호출하는중이며 큰갓과 도포등을압수한것이 다수에달한다고한다

# 堤川普天教徒 脫退하고削髮

【堤川】충북제천경찰서에서는지난이십이일그관내에 거주하는보천교도간부 십여명을소환하야 동교의탈퇴를 권유하엿다는바 각지의수많은○어덧슴으로 그날보천교교약소(普天敎敎約所)라는 간판도떼여버리엿스며 그자리에서 삭발까지시키엿다는데 동관내는 한사람의보천교도 업시되엿다고한다



泛舟中流 【漢江에서】

# 새담배두가지 七月一日에發賣

오는 칠월일일은 조선에 전매(專賣) 제도가 창설된지십오주년에 해당한 긔념일임으로이날을기하야 발매하는 신작품 양절고급담배『가오리』(열개에이십오전)와 군인만전용하는『이사무』(열다섯개에오전)와 또칠월일일부터 십사일동안시내상공장려관 회장으로 개최하는전매전람회 개최중에 발매되는 개장권연『조일』 피존의 족으마한장은 각긔동굿에서 고안중이든 바이즈용절정되여마침내 거리의 담배가게에『데뷰』하기로 되엿다한다

# 蓬萊町에交通事故

이십오일 오후일곱시쯤되여시내 봉래정(蓬萊町)삼정목 이십삼번 에사는 송종원(宋鍾元)의손자 영표(英杓)(三)가 길을건너가다가 부아현정(北阿峴町)이백 륙십칠번지 술집배달부 리원준(李元俊)(二〇)이가 타고가는 자전거에치어 십일간 치료받을상처를 당하얏다

# 젓먹이가飮毒

## 家庭에서注意할일

시외뚝도면 화양리(華陽里)칠십일번지 정생능(鄭生能)의두살먹은아들 성윤(聖允)은이십오일오전 십일시경부모들이집을뷔고 나간동안에 마루에잇는양재물그릇을 드려마시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아이보는게집애가발견하고 즉시부근병원에 데려다가 응급수당을가하얏스나 원체다량을마시엿슴으로 생명이위독하다는바 일반가정에서는 주의할일이다

# 平壤에大競技場

## 陸上競技、水泳、庭球等大規模의設計圖

### 東大院里에設置計畫

【平壤】인구사십만의 대평양건설을 목표로하는 평양부에서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은 축구、륙상경기、야구、시민대운동회에겸용되고잇서서 어느부분의 운동에도 석원치안흔뿐아니라 농구문제에도 영향이 적지안흐며 더욱이 야구와륙상경기용의『그라운드』의 분리를 주창하는 부민이 만핫섯는데 부당국에서도 행정구역 확장공작을하는 현재 륙상경기에 잇서서 륙상경기용『그라운드』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대원(東大院)부유지를 리용하여 대규모의『그라운드』설치계획을확립하고조사를개시햇다

이제신설되려는『그라운드』는 륙상경기용『필드』정구(庭球)의셋으로분리되엿는데 경기용『필드』는 백팔십미에 장(長)이백이십미주위『트랙』에는 상이만인을수용할수있는것으로『풀』은 오십미의장수로(長水路)로 전면적은 광(廣)륙십미에 장(長)백이십미 관중삼천인을 수용하는것으로 정구는『코-트』팔면 광륙십미에 장(長)륙십미 관중오천인을 수용할수잇는 대규모의 것으로 서조선의일대『스포츠』전당을 형성하려는것이다 그리고 야구장은 아직 현재위치에 남기기로 되엿다한다

# 箕林里現運動場中心 大遊園地도計畫

## 動物園植物園水族舘等

【平壤】동대원리에 새로운대규모의『그라운드』가 건설되면현재의 긔림리(箕林里)공설운동장은 일대 유원지(遊園地)를 건설할계획을 수립하엿다

위선현재의 읍취각(揖翠閣)을 회장하고 운동장 전기지를 리용하여 식물원(植物園)과 동물원(動物園)을 설치하여 화초접석의 모란봉(牧丹峰)을 더한층빗나게하는 조선제이 창경원(第二昌慶苑)을만드러 평양은 물론 서조선의 명유지화하려는것이다

동물원에는 각종어류(魚類)수류(獸類)조류(鳥類)를 총망라하는일방 수족관(水族舘)을만드러 심해어족의 유영상태를 관람케하는외에 현재『풀』에는 각종해수(海獸)를 방축할터로 대동강에서 모란봉을넘도록 물을끄러올어 울창한송림에서 폭포(瀑布)를 관상하게만들계획이 진행되고잇다

# 春繭價高로 農村이潤澤

【平壤】식량이떠러저 고통하든농촌에서 최근들리지는 명랑한『뉴-쓰』 고치경긔가 전해진다 미국의경긔가 다소 회복된점과 일본내지의 춘견감소로 조선산고치가격이 올라가는바람에 이십삼일 현재 평남도 공판(共販)최고 가격은 상원구십이전으로 작년보다일원팔전이 노파려 이때문에 춘견의출회량을십만관으로 예상하면 삼십오만원이 농민의주머니를 불처게하여 적도농촌경긔의윤택을보히고잇다

# 榮田에暗葬屍

## 新設町에서

이십사일오후두시경에 시내신설정(新設町)경마장(競馬場)부근 배채밧속에 나흔지날가량되게 짐아이시체를 파무더둔것이발견되여 한참소동을 이르키엇는바소관동대문서에서조사한결과 병사한시체를암장한것으로 판명되엿다

# 脫線된糊口之策

## 留置場에가서나 밥어더먹으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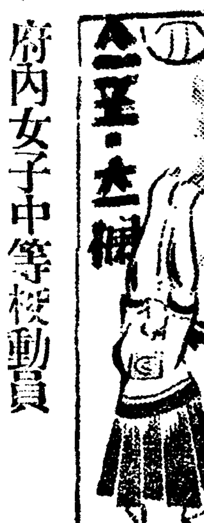
### 닷새굶은失職青年이도적질

실직(失職)과 긔아(饑餓)에몰린 그에게 다음으로 오는것은범죄(犯罪)이엇다=이십오일 오후 시내 종로서사법계에는 경상북도 안동군길안면송사리(安東郡吉安面松仕里)에 본적을둔 젊은 로동자 박재주(朴在珠)(二三)가 시내 황금정(黃金町)이정목일백구십오번지 매월(梅月)식당에서 구두한켤레를 도적햇다가 붓잡혀왓는데 그는 빈농(貧農)의 맛아들로 태여나서 만흔식구에 도저히 살아나갈길이업서서 도회로 나와서 로동을하야 돈을 버러보겟다는 생각으로 고향을 등지고 일터를 차자 다니다가 얼마전에 인천(仁川)에서 일자리를일코 서울로올라왓스나 아모데도일할곳이업서 닷새동안을 밥한술을못어더먹고 그대로 창자를움켜쥐고 굶주리어오다가 드듸여류치장에가서나 밥을어더먹으랴고 그와가티도적질을 한것이판명되엿는데 경찰에서도 특히동정하야 관대한처분을할터이라고한다

# 移住同胞被害件數 累進的으로激增

## 咸南道對岸의土兵禍

【咸興】해와더부러 그피해가더욱 심하여가는 함남도대안의토병화(土兵禍)=함남도경찰부에서 조사통계한 수자를보면 순전히 이주동포들이 토병들에게서 바든피해는 소화륙년도에 피해인원 구백오십구명에 일천륙백삼십일원이든것이 그후해마다 루진적(累進的)으로 격증하야십년도에 이르러서는 피해인원 륙천구백칠십일명에 삼만칠천이백이십오원으로 인원으로는 약칠배 피해액으로는 약이십배의대 격증이다 그리고 오개년간의합계를보면 인원은 삼만사천구백십일명이고 피해금액은 십이만필천 륙십오원의 거액에달한다 이러케 격증된원인을보면 만주국이 건국된이래 토벌이심하야진관계로 토병단들이 근거지를일코서 식량난(食糧難)에빠저 할수업시 압록강안에잇는 이주동포촌락을 습격하게되는것이라고한다




# 府內女子中等校動員

## 女子스포-츠華麗陣

### 陸上、庭籠排卓球一齊擧行 明廿七日市內各處서

各種競技大會가 長期間에열리기 때문에 學校敎育上 支障이 적지안타는理由로 京畿道學務課에서는 이를統制하는意味에서 明二十七日의하로동안에 各種競技大會를 一齊히 擧行하기로되엿다 이날은 出場하는府內各女子中等校는 全部休暇를하게되엿는데 市內各處에는 女子스포-츠의華麗陣이展開될것으로 期待된다 各種大會를列擧하면 다음과갓다

▲陸上競技=午前九時부터第三回京畿道女子中等大會(京城運動場)

▲庭球=午前十時부터 女子中等校庭籠戰(京城運動場코-트)

▲卓球=午前九時부터 第一回京城女子中等校리-그戰(京城女子實業校講堂)

▲排球=午前九時부터 排球大會(京城運動場)

▲籠球=午後二時女子中等籠球中央豫選決勝戰(京城運動場)

# 第十五回A마라손 廿七日午後五時

서울陸聯主催의 第十五回A마라손會는 明二十七日午後五時부터 從前과가티 光化門通네거리를出發點으로 漢江人道橋 北端까지의『코-스』에서 行할터인데 參加者는 參加金十錢을 添付하야 出發直前까지 申請하기를바란다고한다

# 淑明女高敗戰 一高女勝捷

## 今日、女高와決戰

籠協朝鮮支部主催의 全朝鮮女子選手權大會 中央豫選리-그戰第五日은 二十五日午後五時三十分부터 淑明女高對第一高女戰은 B級首位爭奪戰을 行하기로되엿는데 前日一高女에게 單一點差로 惜敗한女高普의 雪辱戰은 자못興味를이끌고잇다

【前半】淑明軍 數次一高女軍의 巧妙한 地域防禦陣에 突入하엿스나十餘次의 凡投만犯할뿐으로 無慮되고 淑明申奉善의長投二個뿐으로 前半은 十二對四로淑明軍리-드를당하다

【後半】淑明軍金、尹兩포-드를爲始하야 C林英順의 活躍으로後半은一高女의 陣을一時攪亂식히엿스나 一高女軍의 猛烈한連攻에效업시 後半은十四對十一로 亦是리-드를당하야 結局十五對二十六으로 淑明軍敗하다

| 淑明 | 前 | 後 | 反 | | 一女 | 前 | 後 | 反 |
|---|---|---|---|---|---|---|---|---|
| 金明河 | 0 | 3 | 0 | F | 森高高吉松崎野 | 0 | 2 | 0 |
| 尹德珠 | 0 | 2 | 0 | | | 0 | 0 | 0 |
| | | | | | | 0 | 3 | 0 |
| | | | | | | 0 | 8 | 0 |
| 林英順 | 0 | 4 | 2 | C | 中 | 9 | 2 | 1 |
| 李鍾熙 | | | 0 | | | | | |
| 申奉善 | 4 | 2 | 0 | G | 中對 | 0 | 0 | 1 |
| 鄭世學 | 0 | 0 | 4 | | 高村 | 0 | 2 | 0 |
| 計 | 4 | 11 | 8 | | | 12 | 14 | 2 |

# 卓球聯盟戰

## 高麗卓聯主催

高麗卓球聯盟 主催와 中央基督教青年會 後援의 第一回卓球聯盟戰은 來七月十一日(土曜)午後二時부터 鐘路青年會舘에서 擧行할터인바 參加希望團體는 七月八日까지 參加金一圓을 添附하야 中央基青內 同聯盟事務所로 申請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規定】

一、本聯盟戰優勝팀에게는本聯盟에서 制定한優勝盃를授與함

一、優勝盃는 優勝팀에서 次回聯盟戰까지保管함

一、一팀選手五人出場하야 三點先取로定함 但補缺은 二人以內로함

一、一人의選手權은 一팀에限함

一、競技中棄權한팀이 有할時는 當該팀은勿論 當該팀으로因한 一切成績을 取消함

一、審判은最終으로함

一、用球는TY球를使用함

Olympische Spiele 1936

올림픽代表選手通信

# 哈市로向하며

## 李奎煥發信

前略…二十二日午後十時에新京에 내렷습니다。새벽녘에 京城驛『플랫폼』에서 여러분이 歡送하여주신것 先輩諸位로부터의 激勵의말슴은 汽車로 여긔까지 오는동안 안열번스무번 마음속에 기피색여 戰地伯林에 到着할때까지 所重히 간직하려합니다。한便으로 생각하면 故鄕을떠나 異土에가서 주먹힘을 다투는다는것이 年少한 저로서는 외롭고 조심스럽기도하나 그러나 朝鮮男兒의 壯途를 확내인다는點에 잇서서는 어떠한지 異然스런 慰藉의피가 제 온몸을 뛰놀음을 고 맙니다。車中에서는 蹴球의 李、張 諸兄과 無時로 準備하야 서로 趣味잇는 이야기를 주고바드면서 온때문에、新京驛에 이르기까지도 안심하엿습니다。明日은 이곳市街地를 求景하고 가벼운練習을한後 午後十時車로哈爾濱으로떠납니다。지루한 西伯利亞의 旅程가 좀 넘려는되나 이機會에 心身의休養에專心하겟슴니다。伯林到着은 七月三日! 그곳에가서 우리는 우리가가진 모든힘을다하야 싸울려 여러분의聲援을바랍니다。

▲바로 며칠전에 경성사범학교학생들을 만히태워가지고 가다가 큰사고를내이엿으로 유명한 경성 궤도차는 그설비의 불완전으로도유명하거니와 ▲또한가지유명한것은 차안에 파리떼가 만히몰려드는것이다 ▲어떠케나 파리떼가 만히몰려드는지승객들은 불평이 만타 ▲더욱이 그차안에 몰려드는 파리떼는 그궤도연선에 처다가버린 똥을 빠라먹다가 날러드는 파리들이므로 더러웁고 더욱이 더러워서 못견된다 한다 ▲경성 궤도회사 당국자는 이불결하고 위생에해로운 미물을 좀방지할도리가업슬가

# 都市對抗野球

## 朝鮮豫選對陣決定

大每主催의 第十回 全日本都市對抗野球 朝鮮第二豫選은 各地代表五팀으로 決定되바 그抽籤結果는 다음과가트며 七月三日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하기로 되엿다

▲七月三日(午後四時半) A全京城對淸津鐵道

▲同四日(午後一時半)B大田鐵道對平壤殖産 同日(午後四時半)C全大邱對A勝者

▲五日(午後二時)B勝者對C勝者의決勝戰

# 鄉土訪問計畫

## 明大拳鬪部一行

東京明治大學에 留學하는 朝鮮拳鬪選手一行이 夏期休暇를 利用하야 京城、平壤에 來征한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具體的計畫을 세우고저 마네저 金明坤君을 先發케하야 方今 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과 交涉中이라는바 一行은 八月中旬에 京城에서 二回戰 平壤에서 一回戰을 行할豫定이라한다 그陣容은 明大의現役 또는 候補로 活躍하는 猛將들이라한다

【푸라이級】朴炳杰 【빤담級】朴爲 【페더-級】金明坤 補欠韓寬洙 崔在俊 【라이트級】金季松 【웰터-級】黃灌

# 卓球兩選手京都에

專門校卓球界의名選手 朴盛泰(高商) 周鐸洪(普專)兩君은 來七月十四日京都에서열리는 全關西學生卓球聯盟主催의 學生東西對抗에西部代表로 出戰코저 十一日京城發 出征할터이라하다

# 올림픽本隊

## 滿洲里發伯林에

【滿洲里二十四日發同盟】世界制覇의 意氣衝天하는 올림픽代表平沼團長以下 百五十一名一行은 올림픽特別列車로 二十四日午前八時 盛大한歡送裡에 하이랄을 通過하야 午後一時 滿洲里에到着하야 가벼운練習을行하고 當日午後七時에 伯林으로向하엿다

# 霸者『자바라』選手

## 齒痛으로練習嚴禁

【伯林二十二日發同盟】우리들의 마라손選手孫、南兩君은 지난二十日올림픽村에 드러가 連日猛練習을 거듭하고 잇는데 우리選手의 唯一한 强敵인『자바라』選手는『스톡호름』에서 獨逸에도라와『윈데벨크』에서 最後練習中이든바 지난十八日부터齒痛이再發하야 練習을中止하고잇다는데 醫師로부터도 올림픽大會開始까지 練習을 嚴禁하라는 命令을 바더目下養靜中인데 大會出場에는 아무支障이업스나練習不足으로 因하야 實力을 發揮할는지가 疑問이다 同選手는 昨年米國에서 自働車事故가 잇슬때에 顎部打撲을 바더 奧齒가 부러진것이 最近의 猛練習으로 因하야 또다시 알흐기 始作한것이다。

# 今日의運動

▲籠球=女子中等校리-그B級首位決定戰 京城女高對第一高女 午後四時半 淑明코-트

▲씨름=全朝鮮씨름大會第一日午後八時半 鍾路中央基青體育舘(場內整理費十錢)

▲野球=京城醫專對高商定期戰午後五時 京城球場


# 淋疾 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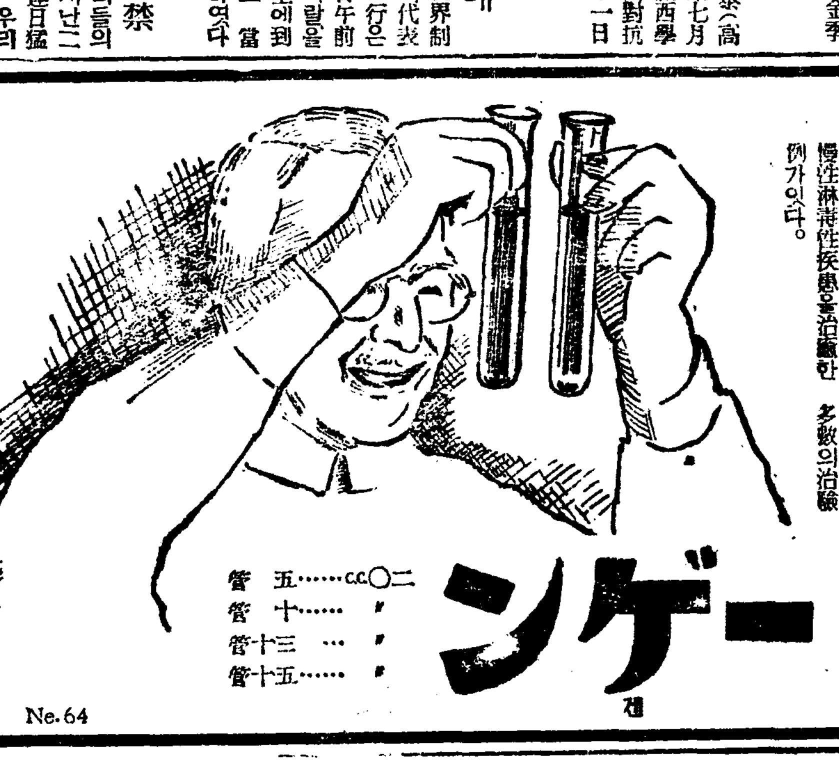
## 合併症治療劑

迅速히排膿을中止식히고滿尿를清澄히疼痛을鎭定함

本劑는淋疾의治療上가장信賴할수있는 와구진을 特殊特許의處理에依하야 發熱等의 副作用을除法하고그効成分인안지젠을 普通藥의數倍를一回에쓸수잇게硏究하고 이에化學的治療劑인 칼시움及우로사민等鎭痛、消炎、殺菌力잇는藥劑를配合하야 完成한것입니다따라서

急性淋疾에는 처음부터 慢性淋疾特히治療困難한 攝護腺炎、丸炎等에는特히有効하야 治療界에 賞用되여잇습니다。또婦人科領域에 잇서서 手術外에治療法이업다는 喇叭管炎、子宮內膜炎에도 奏効합니다。

本劑의 注射는 隔日로이를施行하야 慢性淋毒性疾患을治癒한 多數의治驗例가잇다。



注射 ネオカルゴノーゲン 네오가루고노겐

二〇cc…五管 十…管 十三…管 十五…管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No.64

# 鼻코흘니개……와 鼻코맥키는

▶治療法의秘訣◀

코가흐른다…맥킨다…냄새난다…마른다…냄새를모르는症은 蓄膿症‧肥厚性鼻炎‧鼻茸‧鼻加答兒等의惡性이發生되엿슴이며人相이나뻐게되고極度神經衰弱에빠저頭痛이나頭重에苦痛바드며記憶力‧判斷力‧思考力…이衰弱하게도減退되어눈、귀、胃腸이나뻐게되며여러가지餘病이반드시생깁니다。▼顏나身體나人相까지도나뻐게되는무서운鼻病『아러내는法과治療하는法』▼鼻病에나쁜飮食物▼日常衛生法의鐵則▼醫學上올바른療法의册子…無病院設備로보면도…구든지잘알수잇다藥書에『朝鮮日報』名記入申込하는患者에無代進呈함

코가나뿌면 全身‧醫‧人相까지도나뿌게되다

東京市芝區南佐久間町二ノ二 申込所 確報堂藥品部

# 至今은皮膚病의流行期입니다!

이로부터는皮膚病이猖獗할때입니다。모든皮膚病은些少한放心으로 곳全身에퍼지는것연故로 곳히후미로治療하는것이조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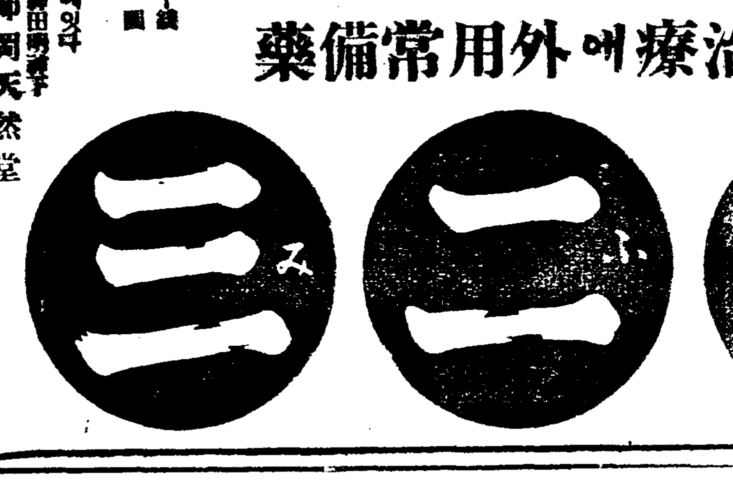
皮膚病治療에外用常備藥

(主効) 버짐‧무좀‧태독‧濕疹‧땀띠 백선‧옴‧낭습진‧백납‧부롬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全國藥店에잇다

本舗 東京神田明神下 實効藥舖 師岡天然堂



# 京城版

## 貞洞公普同窓會

시내 정동 공립보통학교(貞洞公普)동창회를 오는이십팔일 오전아홉시부터 동교에서 개최한다는데 회우는 다수참석을바란다고한다

# 澎漲하는大開城
## 三年以來로滄桑之感
### 郊外地價는數十倍로騰貴
### 土地뿌로커猛跋扈

【開城】삼년지간에 급속히발전한 개성부의 면모는 상전벽해라할만콤 달라젓다 지금 지정(池町)고리고개(掛峴)너머와 로적봉(露積峰)부근은 삼년전만해도 십상오곡과 가리적막하기 짝이업든 한촌이 지금은 수백호 훌륭한가옥이 산러까지 총총백이로 늘어서 깨끗한 신촌(新村)과 문화촌을 이루웟스며 지금도 부산동(扶山洞)유랑대로를끼고 잣고만 늘어가는가옥은 광문암(廣文岩)구석까지 치달어서 북부일대에 채전(菜田)은 전부집터로 변한감이잇다.

따라서 땅갑은 실로 수십배올라 삼년전엔 한평에 이십전에 불과하든바로가 지금엔오륙원을하고 일원가량하든 토지는 십원내지 이십원까지하야 천량의자를보이고잇스며 가옥시세도 전년보다 약삼할가량이나 등귀된심이라는데 이기회를리용하야 불로소득으로 손쉽게큰돈을잡은 토지장사와 뿌로카가 상당하다타한다.

## 日就月長하는 龍頭里學術講習所

고양군신도면룡두리(高陽郡神道面龍頭里)는 교통의 불편이란지리적관계로 현대문명과는 등지고잇서 항상적막한늣김을 주고잇서 그동리유지들이 이를깨탄하야마지안튼바 경성광택상회(京城廣澤商會)주인 허택(許澤)씨의소유인 빈집을 룡두리유지인경석(慶奭)씨가 대부를바더문맹타파의봉화를 들기는 소화사년십이월이엿스니 당시네사람의아동으로된 일신학술강습회(日新學術講習會)라는것이 탄생하엿다 이에배움에 주렷든 린근아동들이 날로날로 모혀들어 주간부와 야간부가 도합륙십명이 넘게되니 다른 살림에 옹색한점은 고사하고라도 교장(敎場)문제는 협착의 극에달하야 이것의 확장은 실로 해 강습소초미의급무이엿섯다 이가티긴급한때에 전긔허택씨는 가옥을수리확충케 하엿스며 이어서 소화구년 사월에는 금사천여원을희사하야 일반비품과 교편물등의설비가 거이완전히되니 룡두리미취학 남녀아동에게는 일대서광이 비치게되여 오늘날에와서는 룡두리에서 유일한학원으로원세는 일취월장하야 탄탄한압길이크게 기대된다고한다

(사진은 룡두리 학술강습회)

## 仁川씨름大會 盛況中에終了

【仁川】인천체육회주최와 본보인천지국후원의 제일회 전조선씨름대회는 긔보한바와갓치 이십삼일부터 이일간 거행하얏든바 관중은장내장외에 무려이천여명에달하얏다 당일명예의 우승자씨명은 다음과갓다하더라

一等 韓昌熙(仁川) 二等 金永秀(仁川) 三等 李任玉(原口) 四等 朴永七(瑞山)外三人 五等 朴文萬外七人

(사진은 대회장전경)

내에서 최○비일등으로 송도고보(松都高普)오영언(吳泳彥)군에게로갓다하며 다음은

二等 崔曉鏞
三等 李福萬
四等 吳世泳

## 學友映畵會開催

경성학우영화회에서는 부민관에발성영사긔와 영사막등의 새로운 설비가완성되엿슴으로 오는이십칠일 오후두시부터는 중등학교남자에게 그리고 이십팔일은 중등학교녀자에게 영화를보이리라는데 밤에는 이틀동안 전부 오후일곱시부터『부형과합』의저녁을개최하야 부형모자(母姉)등일반에게 관람식히리라고 하는데 료금은부형이삼십전 중등생도가 이십전이오 초등생도가 십전이라고하며 영화제목은『군국자장가(軍國子守歌)와 주금소(朱金昭)』라고한다

## 高麗青年會主催 씨름大會盛況

【開城】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로 지난이십삼일 오후구시부터 전조선씨름대회를 동회관

## 開城高麗青年主催 全朝鮮體庭球

【開城】오는칠월십이일 오전열시부터 개성고려청년회(高麗青年會)주최로 제삼회 전조선단체정구대회(第三回全朝鮮團體庭球大會)를 백수동(白水洞)코-트에서 거행하리라는 바 직긔규정아래 만히 참가하야주기를바란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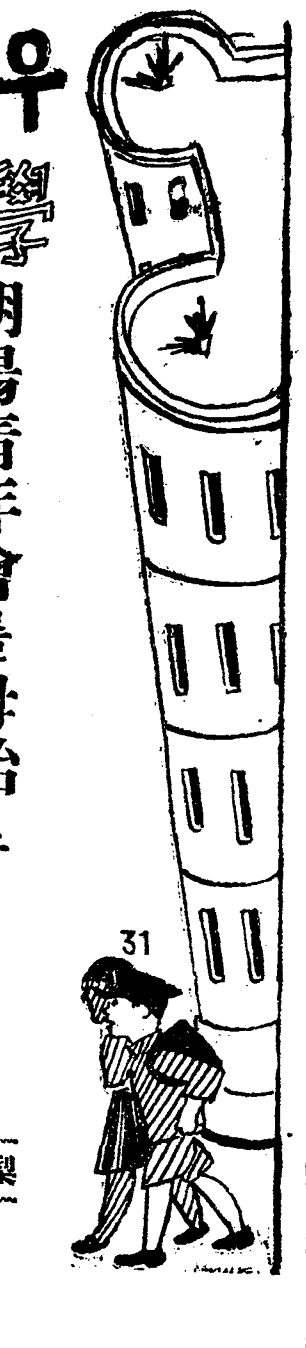
▲申込期日 七月八日까지
▲方　法 官製葉書로
▲場　所 高麗青年會館
▲申込金 每組二圓
▲團　體 三組候補一組

## 本報仁川支局後援 延專音樂團大演奏會 七月三日公會堂서

【仁川】연희전문학교 동창회인천지부주최와 본보인천지국 후원으로 오는칠월삼일부내 산수정(山手町)공회당에서 연전순회음악단을 마지하야 음악회를개최키로 되엿는데 이소식을접한 인천시민은 벌서부터 손을꼽아 고대할형편으로 각방면의 화재거리가 되야 인긔가 비등되고잇다 이번에 특히 동교의 유일한 자랑꺼리인 사십명의『오케스트라』와 사중창(四重唱)등도『프로』에너케되야 대성황일울것으로기대된다

# 우리아이들 學園 (31)
## 朝陽青年會를母胎로 夜學으로始一步
### ―元胤洙氏特志로校舍新築―
### 超速度的인發展過程

梨泰院普校篇



×

한강교행전차를타고 신룡산방면으로 가다면삼각지(三角地)란 정류장이잇다 여게서 동쪽으로 쑥내가티 뻐친길을 약 이십분가량 거르라면 리태원(梨泰院)천바란재란 강파른 언덕 여페 주막들이 질비하게 느러서 잇는데 바로이뒤에 붉은벽돌로지은이층건물이 이지방의 아들딸들을 고히길러 이사회에 이바지하려는 리태원보통학교(梨泰院普通學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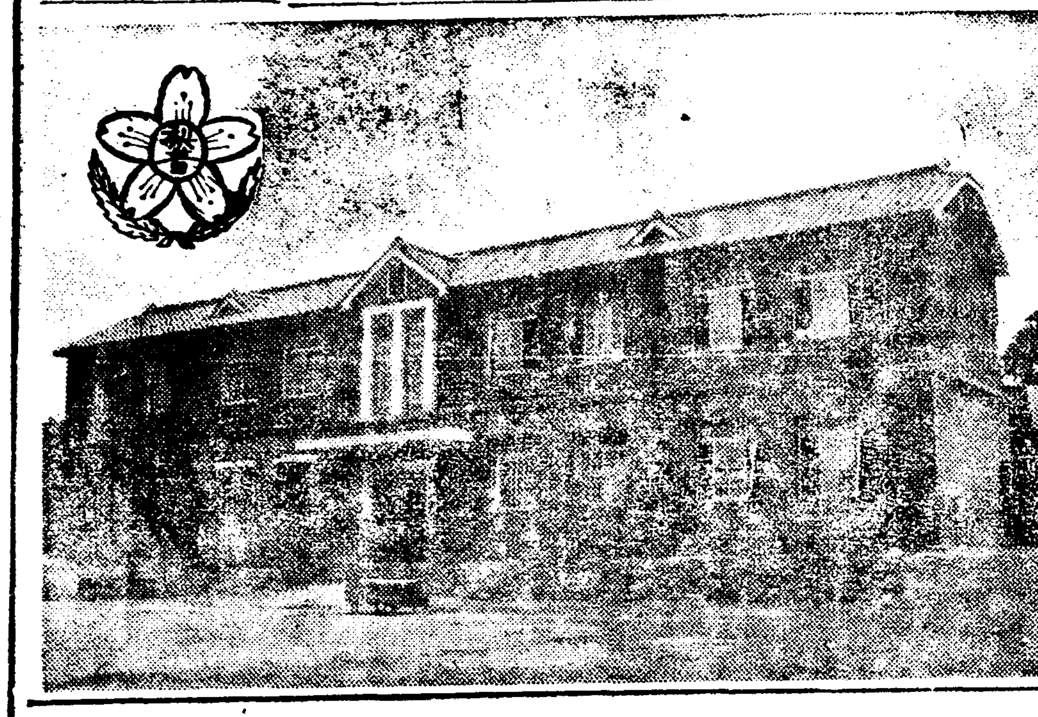
등뒤에는 목면산(木覓山)에옥여진송백이 배경을짓고 여프로는 한강의 푸른물줄기가 한폭의 수채화를련상식히며 잘두봉(蠶頭峰)아래형채조차앙앙해가는 한양의성곽(城廓)은 눈아페뚜렷이 보이는것이다 또한이학교뒤에는 아트막한 초가와 가와집들이 고개를숙이고잇서 마치 암닭을 따러다니는〃병아리〃와도갓다 이러튼 이학교의 위치는 명당을골러집엇스나 여기서 마음과 몸을 닥는 어린이들도 그만큼 씩씩할것이다

이학교가 오날에 이르러긔초도 공고해젓고 전도가단단하기까지는 눈물겨운 사실이만타

× × × ×

때는지금으로부터 십년전인 일천구백이십륙년이지방유지김창완(金昌完)리문근(李文根)강대희(姜大熙)리홍순(李鴻淳)김영환(金榮煥)성경득(成慶得)제씨들은 동리소유물로 당시 여섯간에기와집한채를 근거로정하고 조양청년회(朝陽青年會)란 간판을달고 동리 젊은이들로부터 회비라고하야 주머니돈들을 터러모앗다 이리하야 회원들도 날로 만허가니 필연적으로 회에재정도충분하여젓다 이때 전긔제씨들은 또한바대로 몬저 조양청년회에 부속사업이란 명칭하에 조양학원(朝陽學院)을 신설하게 되엿다 이것이 동년이듬해인유월십일이엿다 그러나말하면 경마잡고십다는격으로 또한 어떠케햇스면 남과가티 주학을식히게될가하고 항상 노심초사하든중에 그러면 회원회득함에 성쇠여부가잇는것이라 생각하고 그리로만 매진하엿다 그리하야 재정은 주학까지해도 곤난을당하지안을만큼 모혀섯다 이때전긔제씨들은 더욱분발하야 동회원에 야학부를일로 주학으로 승격을식히니 이것이또한 지금으로부터 팔년전구월오일이엿다 이후 동학원은 날로 비출내이게되니 매년입학생사태로 결국엔 교사협착이란 반갑고도 괴로운회비문제를 이르키게되엿다 이때에할수업시 조양청년회는 조양학원을가르족신자(贖身者)가되여 해산을식히고 그회원들을 전부조양학원에 후원회원으로 돌며노앗다 그러나 한강승문제는 살림이커질사록 비용도자연 만하드는것이 원측일것이라 십년전 그조양학원은 비록컷컷한 남포불미테서 책상도업시 가르켯지만 이제와서는 남포불보다 당장에몸담을 교사가 퇴락이되여 만흔날에는 햇볏치 새여들고 비오는날에는 소낙이가 쏘아드는비운에 이르럿섯다, 이를본학원당국자와 후원회원들은 잇는힘을 다하야이나 원낙이구차한동리라 버려진 큰살림사리를 감당보충할만한힘은 나지안헛다 외동리에는 이문제로 초조한번민을 한때에뜻박게 독지가 두분이 나서게되엿다

한분은 현재룡산보병제칠십팔련대에 근무하는 김석원소좌(金錫源少佐)요 또한분은 부내어성정삼십삼번지에사는 부호독지가 원윤수(元胤洙)씨이다 이참상을 잘안 김석원씨는 현역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각방으로 활동을하야 육군용지 륙백여평을 영구히 사용하도록 운동을해주엇고 원윤수씨는 먼저재정난으로 비운참상을 당하고잇는것을 구조하고저 위선십이만원이란 거액을내여노아 지난십일월에 전긔와가티 이층벽돌로 대건물을세워논것이다 그리고 방금제이긔공사로 십팔학급의 대교사를신축하는중인데 한편으로는 지난륙월삼일부로 당당하게 리태원보통학교라 승격까지되엿것이다 이학교의 서광은 또한 이것만으로 다한것이아니라한다 그는또 원윤수씨가 아프로도 약삼십만원을 내여노아 보통학교로부터 중등학교와 전문학교까지 안치울포부를 가진것까지 전문하엿다 룡경산(龍景山)뒤뜰에다 터를닥고 목면산(木覓山)송백으로 동량(棟樑)을 세워 한강과생명을함께 빗난학원이될것을 축복하고 긔자는교문을나섯다



(사진은동교사와휘장)

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創製
淋疾 製法特許 パロール 銀コロイド 內服新藥

往々淋疾患者或은婦人帶下等에는局所劑는使用上不便危險의念慮가잇고 從來의內服에만依賴하야治療하는諸種의淋毒性症狀을驅除하는데對하여서는藥效가적고 또單一白檀油와가튼一般內服藥은副作用을伴하는等 此等治淋劑는服用上治療上幾多의缺陷이指摘되여잇지만 從來의藥化學으로서는어찌할수업는事情에잇섯다、

그런데京都帝國大學化學研究所에서同大學敎授堀場理學博士及小田切理學士의 協力에依하야世界的權威의特許『金膠オルガノゾル製法』이發明되여이것을應用하므로써 銀으로純良白檀油中에다 極微粒코로이드狀이고또濃厚하게分散하는方法에成功하야 從來治淋法에劃期的新事實을齎來하기를오래기다리고잇든銀코로이드內服藥의完成을보앗다이것이本劑パロール이다、

即本劑에依하야前述의諸缺陷은完全히除去되여銀이有하는强烈한殺菌力은 體內全病巢部에滲透到達하고또特殊化한白檀油는 그鎭痛消炎力을胃腸障害等의副作用을伴하는일이업고銀効果와相乘的으로 發揮식힌것으로本劑의特徵은一劑로서잘內服藥과 外用局所劑와의藥効를兼有하야그治驗成績은極히優秀하다、臨床醫家와患者가劃時日의治療에使用하야가장好評을博得하는所以이다

一週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十五錢

パロールは全國各地有名藥店にあり、品切れの節は發賣元へ御注文あれば密送す。

無代進呈 新刊『淋疾と其療法』と題する四六判四十餘頁、詳細圖解入り冊子、一名一冊限り。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岩本町大通 振替口座東京五四〇番
支店 大阪市東區淡路町一 振替口座大阪七七九五番

三防藥水浦
設備完全 宿泊低廉 親切叮嚀 風景勝佳
白水館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몸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번두리를압흘때……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호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습니다 各處賣藥房에도무러보십시오

ノーシン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當る廿四日特別大公開 毎日晝夜三回興行

上映時間表 一回 二回 三回
ニュース 一、三〇 三、三〇 七、〇〇
安兵衛十八番斬り 二、一〇 四、五〇 七、五〇
街の艶歌師 一、〇〇 四、一〇 九、〇〇

新興キネマ提供 高田プロ 大合同製作
原作 村岡義雄 監督 牛原虛彦 脚色 村上德三郎
オール・トーキー 街の艶歌師
高田稔 マーガレット・ユキ 主演
新興キネマ提供 寬プロ本年度超弩級作
原作 寬訟『中山安兵衛』より 監督 滝田時夫
撮影 野村金吾 オール・サウンド
安兵衛十八番斬り
嵐寬壽郎大熱演 嵐徠橾(松竹)多多良滔路(新入社)松本田三郎・荒木忍・大西卓夫(新興)外寬プロ總出演 次週三十日特別短期名畫鑑賞◇

永樂町 電話二三五〇番 中央館

六月廿三日封切(五日間) 毎日三回午前十一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次週부터 無說明映寫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M・G・M超特作映畵 안・하데잉 하바ー드마샬 主演 晩春 (Flame Within)
◆M・G・M超特作映畵 윌리암・포ー월 로사리드・랏셀 主演

米國의機密 (Rendezvous) 完璧의刺戟作品、快力怪奇○○못는듯한痛爽無比한포월의活躍에諸氏는拍手와갈채를보내리라
◆日活特作映畵 花嫁日記 杉狂兒、市川春代、主演

映畵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六月廿四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篇豪華週間 每日晝夜三回興行 晝間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 繼映夜間八時부터 大衆料金階上席十五錢階下席十錢
콜럼비아社超特作最全發聲十本版 로스・레다ー만氏監督 地獄船몰간 巨豪조지・방크롭드氏 안・사산 孃 大熱演
東亞키네마社特作品提供

城戶四郎氏監督 時代劇 鬼神의血煙 嵐寬壽郎氏 大熱演 오래간만에諸氏께서愛護하시던嵐寬壽郎氏에全力을다ー한演技를發揮한時代劇亂鬪篇와나社特作品無聲
李・아돌희氏監督 아버지는어지하엿나 主演워ー나ー오ー란드氏존ー밀잔氏후로벨해아 랑그스孃휴ー아젠氏 共演
여러분의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三番 第一劇場
二十四日初日二十六日迄短期公開 副あり奥おり深みある名畫競映會 料金(金週に限)三十錢均一 パラマウント超特作日本語版 ▲生命の雜音

リチャード・バーセルメス ガートルード・マイケル 主演 名匠ミッチェル・ライゼン監督 新たに開演中の大劇場內で脫獄囚の犯罪腕のすく痛な誰にもわかる完璧の日本語版です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ラヂオの女王 千葉早智子・宇留木浩 古川緑波・丸山定夫 矢倉茂雄 監督 主演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絹の泥靴 竹久千恵子・千葉早智子 大川平八郎・細川ちか子 主演 矢倉茂雄 監督
次週二十七日初日 若い處女苑聞、わが胸は高鳴る 晝夜三回十一時半開場入替ナシ
若草映画劇場 電本五二五四番

# 産業

## 田作物增産에 施肥奬勵를計畫 農改低資流用等考究

棉花의 增殖과 食糧充足을爲하야 田作의 改良奬勵를하고잇슴에 不拘하고 從來 朝鮮의田作이 無肥狀態에 放置되어잇슴으로 田作物의 增産을期하여는 施肥量의 增加가 先決問題라한다

現在棉作의 平均段當收量은平均百斤을不出하나 窒素質의肥料一貫을增施할제마다 段當五十斤以上의 增産이 確認되고其他粟、麥類、雜穀과如할도 肥料의 增施에依하야 相當한 增産을 期待할수잇다

是等의 實情에 鑑하야 農林局에서는十二年度부터 棉花增産、工業原料用作物의 增産、食糧田作의改良 亞麻栽培奬勵等의 諸計畫의擴充에 對하야서는 特히肥料의 增施를 行케할 方針으로 目下農事改良低資의 田作流用其他에 關하야 具體案을 講究하고잇다

## 鰮漁調査機關 設置가緊要 關係者間에要望擡頭

朝鮮東海岸의 鰮漁業은 그將來性이 期待되고잇슴에 不拘하고 今年과如히 氣象關係로 鰮來遊가는저 그漁獲減少가 憂慮되고잇슨 境遇現在의 原始的漁獲法으로 始終할은 事業의不安定性을 增加할뿐임으로 最近 關係者方面에 그科學的檢討를 行할必要가잇다하야 現在 北海鰮漁와如히 英國、諾威、其他의 關係國의 共同으로 海流와 漁族의 回游關係를 調査하고잇는國際的調査機關과 如한것을 朝鮮에도 設置하야 鰮의 回游코!스를 根本的으로 調査할 必要가잇다한다 이點에 關하야서는 金融方面에서 特히 期待하고잇는듯하다

## 朝鮮産無煙炭 原價低下對策 今年度부터實施

朝鮮産無煙炭의 日本內地需要의 開拓은 要컨대 그價格如何에 달려잇스므로 朝無及 總督府에서는 統制實現以來 코스트를 低下에 對하야 種種對策에 腐心中인바 目下 다음의 諸點을 考究하고잇다

一、運輸輸送經費의 低下 就中 積込施設에 關하야 保山積込設備를 合理的으로 改革하면 噸當 約五十錢을 低下케될터이다

一、坑內作業、搬出의 合理化所謂山元作業의 改善施行에 依하야 가리 噸當五十錢은 確實히 低下 이두가지가 明白하되엇슴으로目下 新朝産에서는 코스트低下에 腐心中이고 그實現을 爲하야總督府도 積極的으로 進出할 模樣으로 今年度以降 接續하야實現되리라고 보이는바 現山保山沖渡七圓五十錢가량의것이 約一圓低下를 보게되는터이다

## 토마토·써ㅣ진 日本內地委員渡來

토마토·써ㅣ진의 一元的統制問題는 既報와如히 二十四日下關山陽호텔에서 日本內地側日本鰮罐詰組合星野組合長等 當業者와農林省 江副技師等과 朝鮮側稻井 岩倉兩正副組合長、加藤技師等이 協商하얏스나 日本內地側의 一元主張과 朝鮮의 主張에全然妥協의道가 發見되지안허 協商은劈頭부터 暗礁에逢着하야 結局日本內地側代表가 渡來하야現地事情을 認識한後 協議를 行하기로 되어 星野、內田兩氏外日本鰮罐詰組合代表는 二十五日午後三時着列車로 朝鮮側의 折衝委員稻井、加藤氏等과함께 入京하게되엇다 그리고 代表委員等은 總督府에 殖産局長、水産課長을 訪問하야 生産統制及 販賣統制에對하야 協議를 行할豫定인바 交涉의 前途는 假令 妥協할수잇다하야도 江副技師等을 未久渡來할狀況이다

## 緬羊奬勵大擴充 十個年間에五十萬頭를目標로 全朝鮮으로區域擴大

國策先驅의 豫算編成方針에基하야 農林局에서는 緬羊擴充의 具體的計畫을 講究하고잇든바 大體에잇서 現行第一次計畫을 五倍로 擴大하야 十個年間에 朝鮮內의 維持頭數를 五十萬頭로 할 計畫이다 即

一、現在西北朝鮮六道의 奬勵를 全朝鮮十三道에 擴大한다
二、現行年二千五百頭、五年繼續購入計畫을 年一萬頭로 擴大한다
三、奬勵種은 코리데일種으로하나 購入處는 濠洲外 新西蘭北米로한다
四、奬勵는 原則으로 農家의 副業으로하고 全朝鮮農家에 一戶五頭平均으로 飼育시킨다
五、右計畫遂行을爲하야 豫算年額은百萬圓(現行廿三萬圓)程度로한다

## 擁護法發動 施行規則全文

對滿洲通商擁護法 發動에 關한 勅令第一二四號는 二十五日附官報로 公布實施케되엿는바(本報旣報) 그施行에 關한件도 如左히 公布되엇다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의施行에關한件

第一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一條의 許可를 受하려는者는 左에 揭하는 事項을 記載한 輸入許可申請書를 朝鮮總督에게 提出할것
一、品名
二、數量(種類別로記載할것)
三、産出地又는製造地
四、積出港
五、輸入港
六、豫定輸入時期

前項의境遇에잇서 許可를 受하려는者 他人으로부터 委託을 受하야 輸入하려는者일時는 輸入許可申請書에 前項各號에 揭하는 事項外 委託者의 氏名 又는 名稱及 事務所又는 營業所를 記載하고 또 委託이잇는것을 證하는 書面을 添附할것

第二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一條의 許可를 受한者 前條第一項第四號乃至第六號에 揭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때는 미리 이를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第三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一條의 許可를 受한者他人으로부터 委託을受하야輸入하려는者인境遇에 잇서서 其委託契約이 消滅하거나 又는 委託數量이 減少한때는 委託者와 連署하야 三日以內에 이를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第四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三條의 許可를受하려는者는左에 揭하는事項을 記載한 輸出許可申請書를 朝鮮總督에게 提出할것
一、品名
二、數量
三、所向港及所向地
四、讓渡處의 氏名又는 名稱及 事務所又는 營業所
五、豫定輸出港
六、豫定輸出時期

第五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三條의 許可를受한者前條第五號及 第六號에 揭하는 事項을 變更하려는때는 미리 이를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第六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一條 又는 第三條의 許可를 受한者는 其物品의 輸入又는 輸出을하는 境遇에잇서 朝鮮總督이 交付하는 輸入許可書 又는 輸出許可書를 輸入又는 輸出의 手續을할稅關에 提出할것

第七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一條 又는 第三條의 許可를受한者 輸入 又는 輸出을한때는 七日以內에 左에揭하는 事項을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一、輸入 又는 輸出의 許可를 受한 物品의 品名及 數量과 許可의 年月日
二、輸入 又는 輸出을한 物品의 品名、數量及價額
三、輸入港 又는 輸出港
四、輸入 又는 輸出의年月日

第八條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別表甲號에揭하는 物品으로서 本令의 別表에 揭하는것을 輸入한者는 輸入의 日부터 七日以內에 左에 揭하는 事項을 朝鮮總督에게 屆出할것 但오ㅣ스트라리아聯邦의 産出 又는 製造에 關한것에 對하야서는 此限에不在함
一、品名
二、數量(種類別로記載할것)
三、産出地 又는 製造地
四、買入處의 氏名 又는 名稱及 事務所 又는 營業所
五、積載船舶의 名稱 及 國籍
六、積出地
七、輸入地
八、輸入의 年月日

第九條 昭和十一年 勅令第一二四號第六條 第二項의 證票는 別記樣式에 依할것

附 則

本令은 昭和十一年 勅令第一二四號施行의 日부터 이를 施行함

(別記樣式)

表 面

昭和九年法律第四十五號摘要

第一條 政府는 勅令의 定하는 바에依하야 前條의 規定에依하야하는 禁止又는 制限에關係잇는 事項에對하야 報告를 徵하는 又는 帳簿其他의 檢査를 行함을 得함

第三條第二項 前條의 規定에基하야 發하는 勅令에 違反하야 報告를 하지안코 虛僞의 報告를 하고 帳簿其他의 檢査를 拒絶하고는 帳簿書類의 隱蔽不實의 申立其他의 方法에依하야 檢査를 妨害한者는六月以下의 禁錮 又는 三千圓以下의 罰金에 處함 本法에 基하야 發하는 勅令에 依하야 政府에 提出하는 許可의 申請書 其他의 書類에 虛僞의 記載를 한者 亦同함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摘要

第六條 昭和九年 法律 第四十五號 第二條의 規定에 依하야 主務大臣 必要잇다고 認하는때는 關稅定率法別表輸入表에 揭하는 物品으로서 本令의 別表甲號 又는 丙號에 揭하는것의 輸入者、輸出者、取引業者、倉庫業者 其他에 對하야 當該物品의 輸入 又는 輸出의 數量及價額 在庫數量 其他 必要한 事項의 報告를 命할 又는 當該官吏로 하야금其事務、營業所 倉庫其他의 場所에 臨檢하고 帳簿其他의 物件을 檢査식힐을 得함

當該官吏前項의 規定에 依하야 臨檢 檢査를 하는 境遇에 잇서서는 其身分을 示하는 證票를 携帶할것

第七條 本令中主務大臣의 職務는 朝鮮에잇서서는 朝鮮總督、臺灣에잇서서는 臺灣總督、樺太에잇서서는 樺太廳長官으로 行함

表 面

第 號 年 月 日交付

昭和十一年勅令第一二四號第六條第二項의證票

官職

氏 名 朝鮮總督府印

本證票用紙의치수는商工省告示日本標準規格第九十二號B列八號(64mm×91mm)에依하는것으로함

(別表)

| 輸入稅表番號 | 品名 |
|---|---|
| 三八二 | 羊毛、山羊毛及駱駝毛 中羊毛 |
| 三九五 | 屑又는 故纖維、屑絲絲及屑絲 中屑又는 故羊毛 |

## 密陽棉作狀況 二割減收難免

【密陽】密陽에잇서서 數年來普及奬勵에 조흔 成績을나타내고잇는 密陽郡內의 棉作은해마다 未曾有한 躍進相을 보히고잇는바 今年播種面積도 昨年보다 一千六百七十町步로 期待가 적지안흔中 連日 酷甚한 旱魃로 四百六十町步는 거이 枯死하여 今番降雨로 其中約三割은 依復되엿스나 最初豫想보다는 二割減收는 自今으로 追播와 肥培管理를 免치못하리라하며 當局에서一時中이라한다

## 搬出許可制로 自由市場大打擊 그反面에共販出廻는增加 慶北道春繭取引狀況

【大邱】慶北道內 꼿치는 自由販賣市場인 大邱府內로 集中하야 꼿지出廻時期에잇서서는 大繁昌을 이리워오든바 今番에잇서서는 꼿지의 出廻가 減少되어 極히 閑散하다 二十三日現在로 慶北道內各共同販賣에 出廻한 꼿치는 卅萬貫을 突破하야例年이때에 比較하면 조흔成績을 내엿스나 大邱府內 自由販賣市場에 잇서서는 이와反對로縮少되어 例年이때에 五萬貫의賣上高를 내고잇든것이 約三萬七千貫으로 減少되엇다한다 從來에 잇서서는 홍성홍성하든大邱自由販賣市場이 갑작이 不振狀態에 빠진理由는 무엇인가를아라보면

첫재로 從來에잇서 共同販賣보다 빗싸든 市勢가 어지음에 잇서서는 同一함으로 十里 또는 二十里의 遠距離에서 大邱로 올必要가업는것

둘재로 仲買人이 道外로 꼿치를 搬出할時는 반드시 道知事의 許可를 어더야되다는 道令에 拘束되어 仲買人이 從來와가티 大量的으로 사드리지안는關係等이라한다

## 日用商品市況

京城市內 海産物市況을보면 大體가다음과갓다

▲明太 保合 新明太는 北海道産과 朝鮮內産의 入荷가 相當하마는 實行이 極히 不良한데 現在市內在荷는 四車(六百四十餘짝)에 達하다 市勢는 上品한짝(二十두름)에 對하야 二十五圓가량으로前週와保合이다

▲미역 好調 미역은 新物의 루지미역이多量的으로 入荷되고잇는데 이것은鰯의 關係로實行이 그다지 조치는못하나 前週에 比하야市況은漸次活氣를띄고잇다 市勢는 五十雙지에 對하야 四十五錢가량이다 今後는入荷가 漸次로만 허질것으로 先安이 豫想된다고한다

▲조긔 不變 乾조긔는 今週에드러서 入荷가 만흐며 實行도 相當하야 한두름(二十尾)에 對하야 七十錢乃至 八十五錢가량으로 前週에比하야 市勢는 不變狀態이다

▲大口魚 不振 乾大口魚는 入荷도적으며 實行도 不振狀態인데 市勢는 每斤에 三十六錢가량으로 前週와同樣이다

▲메르치 閑散 메르치는 依然 好調의 入荷가적고 實行도 자못 閑散하야 一貫에 對한 市勢는 九十錢乃至 一圓二十錢가량이다

## 鑛業權設定·移動

◇鑛業代理人屆

| 登錄番號 | 鑛區所在地 | 鑛業權者 | 事項 |
|---|---|---|---|
| 一〇五九 | 忠北忠州郡可金面仰城面 | 伊藤乙彦 | 忠州郡周德面柳貞會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屆出 |
| 一〇九八 | 全南寶城郡文德面 | 本田春己 | 咸安郡餘航面服部哲夫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三日屆出 |
| 一二三八一 | 京畿楊平郡靑雲面 | 金洪榮 | 京城府禮府町金應鎬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五日屆出 |
| 一二二八〇 | 平北江界郡公北面 | 田錫浩 | 江界郡江界邑金昌炯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六日屆出 |
| 一六二四 五七六一 五七六三 | 咸北會寧郡花豊面 | 山下黑鉛工業株式會社 | 會寧郡會寧邑大高祥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七日屆出 |
| 一一五六九 | 咸南安邊郡瑞谷面 | 中村惣太郞 | 鑛業代理人西山正發을解任한昭和十一年五月二十八日屆出 |

閱覽 出願 修正 其他
鑛業手續事務一切!!
朝鮮産金組合鑛務部
京城府鍾路一ノ二任家ビル
電話(光)化門二〇三一番

## 黃昏 (120)

韓雪野 作 安夕影 畵

부운(浮雲)(一)

황금정 서정욱 어멈 조고만 료리시집——보통『이마이야』라고 불르는 료리시집 깁숙한 방에 장주임과 정님이가 마주안저 잇다。

그것은 공교히 화수가 려원하야 처음 공장으로 돌아온 그날밤 일이엇다。정님이가 공장사무실로 들어간지 얼마、주임과 단둘이 만나기도 오늘이 첨이다。

어데지 모르게 이상한 공기가 가려안저 잇는듯한 이방에 들어올때에 정님은 문득 나재 화수가 하든말을 생각하엿다——

(그야말로 악마적인 인연인가!)

하고 그는 새삼스레 자기를 중심으로한 세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엿다。

실로 씨슬수업는 응집한 인상을 주는 방이다。

한편 주임에게도 이방은 이졸수 업는 방이엇다——

(나대로 바루 이방이엿지!)

그는 삽년전에 문제를 이르켜던 그녀공을 생각하엿다。그러나、쓰고 달고간에 옛귀어에 잡기기에는、지금 바루 눈압헤 보이는 새로운 유혹이 너무도 생생하고 향긋하엿다——

『자아、이건 괜찬어요、어린애들도 먹는건데』

하고 그는 정님에게 닭알깍지가튼 정종술잔을 들어 권한다。

『아니에요。못먹어요』

정님은 구지 사양하며 술잔을 피하엿다。

음흉한 사나히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야 흔이 술을 리용하는것을 그는 잘알고잇다。그리고 일직 잘먹지 못하는 술을 마시고 자발업시 길음길을 걸어준 기억도 잇다。

그것은 속절업시 사나히에게 속히 만족을 주는것인동시에、자기에게는 그만치 불리를 일레워주는 것이엇다。

그러니만치 이런 경우에 잇서서는 될수잇는대루 남자를 끌고 두름길을、급한듯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축 끌려가지안코 졸졸 끌려오도록하는 요령을 그는 잘 알고잇는것이다。

남자란 마치 험준한 산악과 가튼 것이다。놉흔 봉오리가 잇는가하면 급히 떠러지는 비랑이 잇는것이다。한창 불타오를때에는 끗업는 봉오리가티 처다보이지만 식어가는 때에는 발누길로쉽는 낭떠러지와도 가튼 것이다。

『요놈의 혈보는 또 얼마나 놉흔 봉오리를 가지고 잇노?』

그는 속으로 또 이러케 생각하엿다。

뭘은 답지하지만 이런 속에 의외로 놉흔 봉오리가 잇기도한것이다。

그러나 한편이런 종류에 속하는 인간은 흔이 진드기가티 끈끈이가티붓허서 떠러질줄을모르는것이다 그것도 실업시 큰 탈이다。

(낙궁줄을 아는사람은 또한때 칠줄을 알어야지)

다음으로 그는 또 이러케생각하엿다。

잘 끌고가는것을 생각하는동시에 깨끗이 떼여버릴것까지 미리 생각하는 것이엇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해가며 멀보가 거듭 권하는 술을 구지 밧지안으려하엿다。

방안은 짐짓 고요해젓다。

『나까이』들의 짜개신 끄는 소리도 들리지 안는다。

(해먹게 됐서—— 돈만 쥐어주면 쥐도 새도 업신하게 안으니까)

주임은 속으로 우소며、그러나 엇전지 속이훗들훗들하고조급해나서 손벽을 놉게 첫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불르셧서요?』

하고『나까이』가 문밧게 와서 조심스레 뭇는다。

『응、포도주 한병만갓다주게』

『포도줍니까?……미안합니다만 지금 좀……』

『그럼 사다 주게』

하고 주임이 이러서 문밧그로 돈을 내밀자 나까이는

『미안합니다。』

하고 곳 저편으로 가버린다

주임은 다시 자리에 돌아와 안즈며

『그럼 이거라두 점……』

하고 정님이도 먹으라는듯이 떨리는듯한 손으로 제가 먼저 료리를 집허가다가 양복섭헤 떠러트렷다。딴에는 제법 차리노라고 차린、한세귀나 느진 구식양복을 무슨 례복이나 되는듯이 불이나게 닥고 잇는것을 보며 정님은 우슴이낫스나 참아버리고

『아니 아무것도 먹구십지안어요』

하고 공연히 무료해나서고개를 조곰 숙엿다

『이건 괜찬어요。자아 조곰만……아니 맛만 점보아』

주임은 다시 술잔을 들어권한다

祝 朝鮮日報營口支局發展

營口朝鮮人民會 理事 梁周鉉 電話一二二二番

營口花園街 地方委員 金昌煥 電話一一八七番

營口縣哈巴台農場 平安農事株式會社 專務取締役 金中學

營口金融會 理事 崔保卿 電話二〇九番

營口北本街 信義號精米部 電話長一三一一番

營口北本街 精米業 共益公司 主 洪一河 電話一〇六一番

營口南本街 農場經營 天一洋行 電話一二〇八番

營口農村 農務稧聯合會 電話河北三三番

營口北本街 營口金融精米所 電話長七〇七番

營口農村普通學校 校長 張永鎭 敎員 安鍾午、吉日泰 金鍾觀、金文珞 李心憲、趙明淑

營口農村 河北金融會

營口朝鮮人民會 [illegible]

營口市 高島正太郞

營口哈巴台農場 理事 韓巖國

營口朝日醫院 朝鮮總督府囑託醫 奇能權 電話一四五四番

營口南本街 營口麵店 電話一〇七九番

營口南本街 親切叮嚀 寢具完備 泰安旅館 主 方中鎭

營口二本街 精米業 東安公司 電話一二八四番

營口農村三成醫院 院長 李源宗

營口東陵橋子六二 金洛龜

營口農村 櫻井伊左衛門

營口北本街 飮食店 遼河館 主 金炳奎

營口縣第七區南小屯子 新義州農場 李權 仁永 迪吉

營口南本街號外地 朝鮮料理 平壤食堂 主 劉泰敏

營口靑柳街 朝鮮料理 永樂館 電話七一七番

營口朝鮮民會裏 和洋家具製造業 盧棟權

營口縣田莊市 布木雜貨 田台商店

營口東陵橋子 賣藥商 永新堂 電話長五九九番

營口南本街 布木商 新盛商會 電話一三五三番

營口南本街 布木商 營口商會 電話八一一番

營口北本街 平壤冷麵屋 電話二七六番

營口縣田莊台市 食料雜貨 東興源 主 李超舜

營口北本街 大利社 代書事務所 電話六〇七番 主 李基善

營口北本街 布木雜貨 金星商會 主 金奉洙

營口北本街三信號跡 肥料商 盧德煌 電話一〇七一番

營口南本街 布木雜貨 信益商會

營口東陵橋子六二 代書業 金再杰

營口南本街 李祥來 電話[illegible]

營口農村 李甲鎭

營口農村[illegible]金融會 理事 許潤

營口農村 王守德

營口農村 朴容益

營口永昌街裕昌棧後胡同 黃文吉

營口二本町 高師翼

營口二本町 金允荷

營口二本町 張正明

營口小歡心甸新興公司 黃鍾馨

營口小平康里通惠港 吉亨淑

營口農村 金融會長 安振遠

營口縣田莊台柴市街 申炳元

田莊台永遠街益壽藥房 申韓奎

營口南本街 朝鮮旅館

營口南本街 第一商會洋服部

田莊臺 朝鮮麵店 姜淵楫

田莊臺 朝鮮商店 盧鎭瑞

北本街 日新商店 主 金大運

小歡心甸 新興公司 主 白世敏 電話一四五五番

田莊臺忠義街 新昌商店 主 金瑞鳳

營口北本街 信昌旅館

營口田莊臺西南街 龍川商店